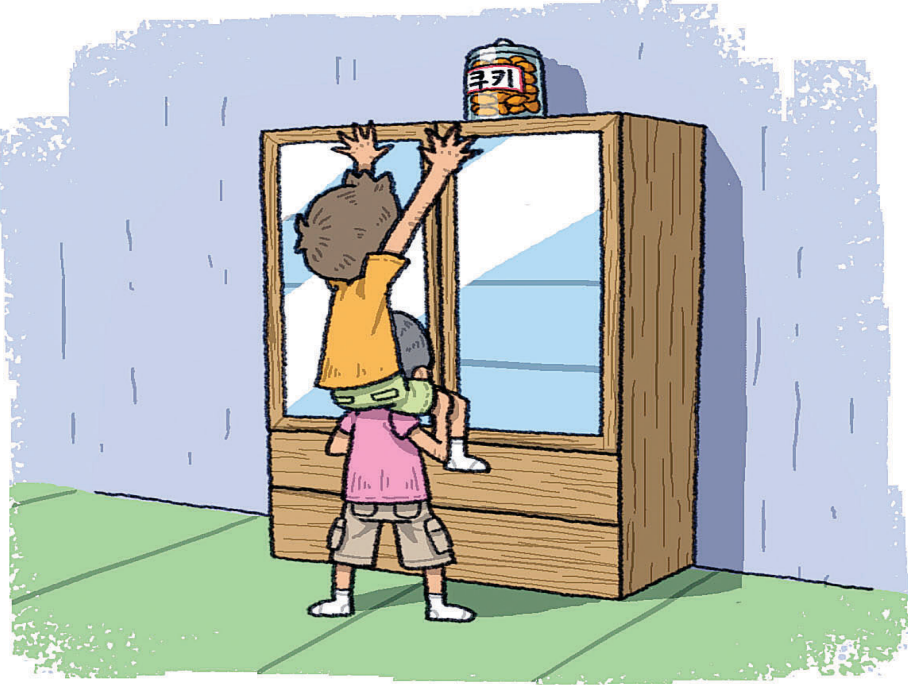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세요



형제끼리 다투지 않고 아끼겠어요

I will not fight with my siblings. We will take care of each other and help one another.

허난설현(1563~1589년)은 조선시대의 여자 시인입니다. 이름은 초희이고, 난설현은 호입니다. <홍길동전>을 쓴 허균(1569~1618년)과는 남매 사이입니다. 둘 다 뛰어난 문학작품을 남긴 남매 문학가인 셈입니다. 허난설현과 허균은 우애가 좋았습니다. 허균은 누나가 지은 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허난설현의 시를 가져가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허난설현이 아이를 모두 잃고 고통 속에서 살다 세상을 떠나자 누나의 시를 모아 시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도행과 화가로 활동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동생인 테오 반 고흐와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빈센트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는 무려 700통이 넘습니다. 세상의 모든 형제, 자매가 이렇듯 사이좋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자처럼 느껴서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는 대립하는 사이가 아니라 우애를 지키며 서로 돕는 사이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허난설현, 허균 남매처럼 같은 일에서 두각을 보인 형제들이 많습니다. 독일의 그림 형제는 전국의 전설과 민담을 모아서 그림 동화집을 엮었습니다. 유희를 발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얀 반 아이크

- * 형제나 자매가 미울 때, 또는 고마울 때는 언제인가요?
- * 형제, 자매와 어떤 이유 때문에 다투나요?
- *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몸과 마음을 돌보며 즐겁게 공부하겠어요

In my family, my job is to take care of my mind and body, and to try my best in school.

조선시대 한석봉(1543~1605년)은 붓글씨를 잘 쓴 명필가로 유명합니다. 국가의 여러 문서와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도맡아 쓸 정도였습니다. 한석봉이 명필가가 된 데에는 어머니의 힘이 컸습니다. 한석봉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떡장사를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했지만 아들을 위해 비싼 종이와 붓을 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해에 아들을 절로 보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라는 배려였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3년 동안 집 생각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어찌 지내는지 궁금했던 한석봉은 1년 만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석봉을 안겨놓고 글씨를 시험해 보겠다고 불을 켜셨습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 보아라." 어둠 속에서 쓴 석봉의 글씨는 괴발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썰 떡은 가지런했습니다. 석봉은 그제야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어린이의 가장 큰 역할을 건강하게 자라며 즐겁게 공부하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 * 한석봉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 *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잘 못하고 있으면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집안일을 열심히 돕겠어요

I will help out when we are cleaning the house.

가정에서 어린이의 역할은 건강하게 자라며 즐겁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오로지 공부만 하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나누어 맡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안일을 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학교 성적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서 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푸는 마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안일이라고 해서 꼭 어머니가 하시는 설거지나 빨래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물건 정리로 시작하여 신발 정리, 불편함 살펴보기, 문 앞에 붙은 전단지 떼기, 거실에 떨어진 물건

제자리에 놓기처럼 작은 관심으로 할 수 있는 집안일도 아주 많습니다. * 여러분은 집안일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 집안일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부모님 입장이라면 자녀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레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 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진귀스님의 화엄경 수행의 가피로 사람들의 몸과 1m이상 떨어진곳에서 마주앉아 차만 마셔도 절을 전혀 못하는 노보살이 절을 삼배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강원에서는 누구나 체험 하게됩니다.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